

업동실한 방역전쟁

하늘에는 AI 해남서 고병원성 바이러스 첫 발견

해남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H5N1형)가 검출되면서 방역 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전북 익산과 충남 서산에 이어 전남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남의 경우 지난 2008년에 이어 2년 만이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는 28일 철새 도래지인 해남군 산이면 영암호와 인접한 농경지에서 폐사한 채 발견된 가창오리 74마리 중 일부의 시료를 채취해 지난 2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고병원성 AI(H5N1)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가창오리 폐사 장소와 인근 농경지에 대한 긴급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발생지 반경 10km이내를 관리지역으로 설정, 사육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전남도는 발생지 3km 이내 사육농가 1곳을 포함해 관리지역인 10km 이내 43개 농



해남군 공무원들이 28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해남군 산이면 덕호리 부흥마을 앞 농경지에서 긴급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가에서 사육중인 닭 84만마리에 대한 긴급 예방을 실시한 결과, 이상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데 안도하면서 인근 양계농가에 축사 그물망 설치를 독려하는 등 야생조류와의 접촉 차단

및 축사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30일만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향후 임상감사 등을 거친 뒤 이를 해제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고병원성 AI가 일반농가에 전파되지 않았지만 농장 소독 및 농장 출입자와 차량에 대한 철저한 차단 방역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땅에는 구제역 총주서도 발병...전라도 코앞까지 확산

충북 총주에서도 확진 판정이 내려지는 등 구제역이 한 달만에 전국 5개 시·도로 확산하자 전남도는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구제역 도내 유입 차단에 총력을 쏟고 있다.

당국의 ‘예방백신 접종’등 강력한 방역 대책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데, 바이러스 전파력이 강한 돼지까지 감염된 만큼 자칫 방역망에 구멍이 뚫려 유입되더라도 하면 지역 확산농가에 큰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매몰한 총주시 양성면 중전리 전전마을의 한우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를 거쳐 충북까지 확산하는 등 5개 시·도, 27개 시·군, 65곳으로 늘어



충북 총주 등 전국 5개 시·도에서 구제역이 발생, 남하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담양군 직원들이 담양읍 경계도로에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통행 차량에 대한 소독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난 것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곧바로 우시장 폐쇄를 시작으로 도 경계 도로 27곳과 시·군간 경계 49곳에 방역통제초소를 설치하는 한편, 도내 591개 공동

방제단과 방역 장비 1730여대를 총동원해 매주 축산농가 일제소독을 벌이고 있다. 도내 시·군들도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해남·해돋이 행사를 잇따

라 취소하고 있다. 여수·영암·강진·해남·장흥 등에 이어 목포와 완도, 곡성도 새해 해맞이 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긴급 점검 - 500일 남은 여수세계박람회

전시관·숙박시설 건립 ‘순조’ 예산 삭감에 도로 확충 ‘힘난’

2012 여수세계박람회(이하 여수엑스포)가 5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열기가 고조되기 보다는 정부의 SOC 예산 삭감에 분노한 여수시민들의 반발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다. 전남도에 따르면 3개월 일정으로 2012년 5월 12일 개막 예정인 여수엑스포가 29일 ‘D-500일’을 맞는다. 박람회장(177만㎡)과 도로·철도·공항 등 SOC사업을 포함한 전체 공정률은 현재 43%를 보이고 있고 박람회장 핵심시설인 전시관과 국내 최대의 아쿠아리움 등은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공사에 들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순수 박람회장 사업비 2조1000억원 중 2조원이 넘는 예산이 확보돼 향후 공사에 차질이 없게 진행될 전망이다.

대회 참가 열기도 높아 현재까지 참가를 통보해 온 나라와 국제기구는 각각 76개국과 3개 기관에 이른다. 이는 여수처럼 등록박람회로 열린 1993년 대전엑스포가 D-500일 기준으로 12개국, 스페인

사라고사엑스포가 61개국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고 있다. 숙박시설(행사장 주변 1시간 권역 기준)도 호텔·콘도 등 고급 시설은 수요(1만5261실)에 비해 1만 3192실이 부족하지만 신축중인 고급 시설이 대회전까지 완공되는 데다 일반 시설을 포함하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1만2000실 가량 넘치는 실정이다. 하지만 박람회장에 접근하는데 필수적인 SOC 예산이 대폭 깎이면서 대회 개최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SOC확충을 위해 내년에도 필요한 예산은 민자를 포함해 1조7404억원이지만 75%인 1조3059억원만 확보됐다. 더구나 국비 지원은 요구액의 77.4%인 9408억원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경성도 관람객들의 주 접근로인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와 목포~광양간 고속도로가 제때 완공될지 미지수다. 이 때문에 여수시민들이 최근

광양경제자유구역 7km² 축소 확정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7.014km²가 해제된다. 지식경제부는 28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제 대상 단위지구는 12개로, 전체 경제자유구역 6곳의 93개 단위지구 569.8km²의 15.9%에 해당된다. 광양만권의 경우 ▲선월 배후단지 1.88km² ▲신대·덕례 배후단지 2.82km² ▲여수공항 2.314km² 등 총 7.014km²이다. 선월 배후단지는 전체 지정면적 3.71km² 중 개발이 어려운 구릉지역이 해제됐고 신대·덕례 배후단지는 13.

76km²중 산지와 문화재 지구 2.82km²가 포함됐다. 여수공항은 공항 확장에 따른 사업성이 결여됐다는 국토해양부의 KDI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등으로 2.314km² 전체면적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로 인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전체 면적은 95.56km²에서 88.546km²로 7.3%가 축소됐다. 지경부는 애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26.29km²를 해제할 계획을 세웠지만 광양지구의 포스코 터미널 CTS(물류센터)와 성황배후단지, 용강배후단지, 하동지구의 덕전배후단

지 등은 이번 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곳에는 투자를 유치하기 어렵고 사실상 재지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지자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12월 1일~1월 7일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주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광여고 가족일동은 성원에 감사드리며, 인재육성으로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2010.11.23 전국연합학력평가 1·2학년 1등급 비율 1위!』

김준화(제10회졸업)
서울대 법대 졸업, 제45회 사법시험합격 서울대 법학과 전국 여고 최초 12개년간(15명) 합격

박이경(제1회졸업)
하버드대 Ph.D 졸업 외국유학생 218명 배출

우가현(제22회졸업)
경향대학교 재학

- 교육청 승인 '수학영재학급' 7년 연속 운영
- 전국 최우수 '영어교육 리더학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수상
-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전국최우수학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수상
- 2007·2008·2009 빛고을 독서마라톤대회 최우수학교 교육감특별상 수상
- 2009·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최우수 교육감상 수상
- 하버드대 Ph.D 등 외국유학생 218명 배출
- 서울대 의예과 등 전국 의·치·한의예과 총 352명 합격!
- 서울대 최근 11년간 총 '72명' 합격!
- 서울대 법학과 전국 여고 최초 12개년간(15명) 합격!
- 사법시험 합격자 17명 배출!

조유리(제14회졸업)
서울대 의대 졸업, 서울대병원 근무 전국 의·치·한의예과 총 352명 합격

고인선(제12회 졸업)
제47회 사법시험합격 사법시험 합격자 17명 배출

신이정(제23회 졸업예정)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합격 서울대학교 최근 11년간 총 72명 합격